

상대방 공감 이끌어내는 말하기 비법 쏙쏙



박진영의 말하기 특강

박진영 저자/형설 미래교육연구원/1만5천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견해에 대해 상대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 능력이 그만큼 필요한 시대입니다.”

광주출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박진영 출간 화제

배려와 경청...소통과 말하기 기술의 기본 자세

첫인상 좌우 말 한마디부터 비대면 시대 소통까지



말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한번 내뱉은 말은 주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처럼 옛 시절에는 오히려 말을 삼가해야했던 시절이었다. 말을 잘하면 일단 사기꾼인지 의심하라는 조언도 어른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말이었다.

오히려 과묵한 사람을 진중하다고 우대하는 세상이었다. 과거 수직적 관계가 주

된, 뒷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를 바라는 세상이 강요했던 말하기 방법이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민주주의 사회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하는 세상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IT시대에서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줄 알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이 관심을 받는다.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말해야할까. 광주출신 커뮤니케이션 박진영(사진)이 펴낸 말하기 특강 책은 소통과 말하기 비법을 다뤘다.

저자는 말을 잘하는 비법으로 타고난 재주가 아닌 공부와 연습을 통해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한다며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글 쓰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독서하고, 사색하고 이를 잘 정리해 제대로 전달하는 과정을 훈련하면 된다. 고민하고 정리하고 어떤 단어를 쓸지 선택한

다음 부드럽고 정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방법을 풀어냈다.

특히 이 책은 리더가 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하기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법을 정리해 담았다.

상대와 공감하기 위한 말하기에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핵심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하기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깨닫고, 매력 있게 말하기를 익히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첫인상을 좌우하는 말 한마디부터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법, 면접관에게도 통하는 말하기, 비대면 시대의 의사소통까지 총 13개 섹션으로 나눠 경청과 배려의 말하기 기술을 다루고 있다.

27년 동안 말공부를 해온 박진영 공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는 “사람들이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의 처지를 배

려해 말하기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돕고 화합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결국 말 잘하기의 출발점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광주 출신 저자 박진영 씨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언론학 박사로 KBS와 TBN 교통방송 등에서 15년 동안 MC와 아나운서로 일했다.

현재도 행사 개막식과 토크쇼 사회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과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공감과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해왔다.

10년째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임원들의 스피치 강사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전남대 객원교수, 공감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이밖에 ‘한순간에 관계를 망치는 결정적인 말실수’, ‘아나운서처럼 매력있게 말하기’ 책을 펴냈다. /김다이지

마한문화유산 활용 등 수록 ‘전남문화재’ 제19집 발간

〈全南文化財〉

전남문화재단, 마한 논문 관련 2편 실려 지역 역사 알리기 적극 추진

전남문화재단(문화재연구소)은 고고학, 고대사, 민속학 등 전남 문화유산의 연구 결과를 수록한 학술논문집‘全南文化財’(전남 문화재)‘제19집(사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논문집에 수록된 주요 주제는 ‘호남지방 청동기시대 석관묘 기초연구’, ‘전라남도 마한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마한문화권의 시간 공간 범위와 문화 특성’, ‘일제강점기 김(해태)양식과 완도지역의 사회상’ 등 총 4편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엔 마한 관련 연구논문 2편이 수록됐다.

올해 시행을 앞둔 역사문화특별법과 관련해 전남도와 재단이 마한역사문화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논고에서는 우리지역 마한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마한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까지 연구돼 앞으로 전남 마한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록에는 전남지역에서 100여년 만에 금동관이 출토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발굴조사 과정과 성과가 수록됐다.

재단은 문화재 관련 학자들 뿐 만 아니라 도민들이 문화유산의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재단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범기 문화재연구소장은 “전남은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재가 분포해 있는 문화유



산의 고장이다”면서 “앞으로 발굴되지 않은 문화자원을 조사·연구한 논문을 발굴해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학술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국립무형유산원,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 전자책 발간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디지털 홍보 안내서인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신명나는 무형문화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개요, 내용과 특징, 역할과 가치 등을 종목별로 한 장에 정리한 전자책이다.

책에는 진주검무 등 무용 7종목, 양주별산대놀이 등 연희 14종목, 종묘제례악 등 음악 27종목 등 전통 공연·예술 분야 48종목이 수록

돼 있다. 무형유산원은 올해 의식·의식 및 전통 지식·생활관습 분야를, 내년에 전통 기술 분야를 정리해 전자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자책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www.ih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새로 나온 책



▲치맥과 양아치=이경식 저자
‘치맥과 양아치’는 인생의 소소한 실수를 소재로 한 유쾌한 자전 에세이집이다. 저자가 평생에 걸쳐서 저질렀던 소소한 실수를 가운데 100개를 추려서, 각각을 인생의 깊은 지혜와 유머로 버무려 유쾌한 에세이로 만들었다. 실수는 성찰을 낳고, 성찰은 자기 발견의 기회를 낳고, 자기 발견은 인생의 소중한 나침반이 됨을, 작가이자 번역가인 저자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유쾌하게 보여준다. /일송북·1만5천800원.



▲사랑은 나노임자=양관수 저자
중편소설 1편과 단편소설 5편을 담아 언어의 마법을 펼쳤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는 진실이나 거짓을 말하는 가치가 아니다. 놀이판의 말처럼 주제와 세상을 이어주는 도구다’라고 말했다.

이 명제처럼 이번 소설집에서 작가의 언어는 세상과 독자들을 연결하는 마법을 부렸다. 독자들에게 작품별로 사회적 단면을 들추는데 각각의 단면들이 아프다. 주인공들이 처한 현실에서 보여주는 적나라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언어의 미학으로 표현했다. /bookin·1만3천원.



▲인생은 땅 한 방=차길제 저자
이제는 땅, 그것도 접경지역 토지(土地)가 미래 투자처가 된다. 휴전선과 접해 있는 접경지역 토지가 마지막 투자 의장(場)이 될 것이다.

토지 투자에 대한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쓴 이 책은 아파트와 주식 투자시대가 지나면 토지투자에 대한 관심이 미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마냥 묵혀있던 인천 강화도부터 경기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그리고 강원도 고성까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고, 해당 지역의 핵심지역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BG북갤러리·1만5천원.



▲나를 다 가져오지 못했다=이효복 저자
노트르담 대성당 벽 한구석에는 ‘아나키아’라는 말이 희랍어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 ‘숙명’. 우리가 흔히 ‘노틀담의 꼽추’로 기억하는 책 ‘노트르담 드 파리’의 집필 동기가 된 말이기도 하다. 1831년, 28세였던 빅토르 위고는 이 말에 영감을 받아 6개월 만에 자신의 대표작이 된 이 책을 완성했다.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40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출간된 이효복 시인의 첫 시집에는 세 개의 축이 어렴풋이 잡힌다. 1950년 한국전쟁과 1980년 5월 항쟁의 상흔, 여기에 선생으로서 겪은 아이들과의 사연이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문학들·9천원.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웃음꽃 활짝 핀 날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즐거운 부동산 대표 유재관 올림

【급구】

- 광주시내 빌딩급구(가부간 1주일내 결정)
- 전남북 관내 농지및임야
- == 조건 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 (토지보상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